

‘형겉 인형 만들기’ 바느질 수업을 통한 아동의 상호작용 및  
태도 변화 과정 관찰 연구<sup>1)</sup>  
- 발도르프 교육과정 적용 가능성 탐색 -

윤 지 현\* · 이 경 선\*\* · 이 지 혜\*\*\*

춘천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교수\* · 원주 귀례초등학교 교사\*\* · 성남 단남초등학교 교사\*\*\*

An Observational Study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Interaction  
and Attitudes of Children through Instruction for “Making Fabric Doll”  
- Possibility for Application of Waldorf Education Curriculum -

Yoon, Ji-Hyun\* · Lee, Kyung-Sun\*\* · Lee, Ji-Hye\*\*\*

*Dept. of Practical Arts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uyrae Elementary School\*\* · Dannam Elementary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interaction and attitude of children through instruction for “making fabric doll”. Based on the theory of “Waldorf Education”, instruction of 8 hours for 3 weeks exercised against 40 children(18 boys, 22 girls) of 6th grade, especially focused two group(10 children), in K elementary school in Chunchoen.

The results of the study by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rough observing, recording, interpretation are as follows :

1. The changes in interaction among children were observed in increase of quantity and quality of conversation among children, of reliability and dependence among children, of intimacy and cooperation among children, and of intimacy between teacher and children.

2. The changes in the attitude toward instruction were observed in increase of confidence and satisfaction, of active and attentive attitude to instruction via more interest about own fabric doll, of positive attitude through attachment to the doll.

Therefore, the instruction of “making fabric doll” based on “Waldorf Education” seems to be efficient to child development and Practical Arts Education.

주제어(Key Words) : 발도르프 교육(Waldorf Education), 형겉인형(Fabric Doll), 슈타이너(Steiner),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 실과교육(Practical Arts Education)

1) 교신저자 : 윤지현(yoonjh@cnu.ac.kr)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흔히 '바느질'이나 '인형 만들기' 수업은 왠지 첨단 교육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여성적인 작업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이성(logos) 중심 혹은 학문 중심적 교육관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활동들은 인간의 지적 능력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더군다나 바느질 수업의 중요 목적이 인간의 이성, 감성, 신체를 통합적으로 아우르지 못하고 주로 손 기능의 숙련에 맞추어져 있다면 더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

가정교육의 기초 교과인 초등학교 실과교과의 성격은 매우 협소한 의미의 노작교육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발도르프<sup>2)</sup> 교육에서 볼 수 있는 노작교육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노작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루돌프 슈타이너에 의하면 인간은 신체(body), 영혼(soul), 정신(spirit)이 통합된 존재이며, 이러한 전인성(全人性)을 바탕으로 하여 물질적 세계에서 정신적 세계로 이끄는 교육적 활동으로서의 노작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아동들에게 실제적인 작업을 통하여 외적 세계의 사물과 상호 작용하는 것은 영혼과 정신을 일깨우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이다.

발도르프 학교에서 형질인형 만들기는 초등학교 4-6학년에서 발달적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비해, 실과교과에서의 바느질 수업은 주로 실용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주머니 만들기, 뜨개질, 스킨, 쿠션 등을 제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인형 만들기는 교육과정에 아직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형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아동이 인형을 가지고 활동하는 동안의 변화에 대한 연구나 인형극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된 바가 있었다(김영일, 1999; 홍경자, 1998; 권미정, 1998; 김삼성, 1995; 김현경, 1993; 김인숙·한애향, 1992). 그러나 아동이 직접 형질인형을 손바느질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

라서 아동이 직접 손바느질을 통해 형질인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내적 변화에 대한 관찰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과교육의 손바느질 수업 내용을 '형질인형 만들기'라는 새로운 수업으로 구성한 후, 아동 간의 상호작용 및 수업 태도의 변화과정을 관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도르프 교육 철학에 근거한 '형질인형 만들기' 바느질 수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실과교육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에 있다.

### 2. 연구의 문제

가. 형질인형 만들기 수업을 통해 아동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나. 형질인형 만들기 수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관찰 대상이 된 학급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아동을 다 관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소수의 아동 집단만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다. 따라서 본 수업에 대한 효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슈타이너의 교육사상

발도르프 학교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는 인간내면의 정신세계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관점과 피테의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하나의 학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학문이 바로 인지학(人智學, Anthroposophie)이다. 그가 말하는 인지(人智)는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지혜·앎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인지학은 단순히 인간에 대해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대한 앎, 즉 인간의 본질, 의미 등을 깨우치는 것을 말한다. 인지학은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직관하도록 인간의 정신

2) 발도르프 학교는 1919년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가 공장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해 설립한 '자유 발도르프 학교(Freie Waldorfschule)'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발도르프 학교는 전세계 74여 개 나라에 걸쳐 740여 개의 학교, 1400여 개의 유치원, 600여 개의 관련시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안관수, 1998:40)이며, 슈타이너는 자연과학의 기초 위에서 감각적인 세계를 넘어서 초감각적인 세계를 파악하는 인식의 도구들을 개발함으로써(정혜영, 1997:4) 보다 포괄적인 이해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슈타이너는 인간을 육체(body), 영혼(soul), 정신(spirit)의 통합체로 보았으며,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네 가지 특성 및 기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 육체·영혼·정신의 삼원적 구조

슈타이너는 인간을 육체와 영혼, 그리고 정신으로 이루어진 통합체로 보고 있다. 육체는 감각을 수반하며 그 감각은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감각만으로는 영혼의 존재와 초감각적 영역을 인식할 수 없다. 즐거움이나 고통, 슬픔, 아름다움 같은 미적 체험들은 육체의 감각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다. 정신을 통한 사고의 작용에 의하여 비로써 인간은 영혼의 세계를 인식하고 영혼을 통한 경험에서만 가능한 물질세계의 신비함이나 심미적 가치가 부가된 보다 높은 차원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신체와 정신을 양극 개념으로 두었고 이를 매개하는 중간기능인 영혼은 여러 가지 복잡적이고 다중적인 경험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영혼은 사고하기(thinking), 느끼기(feeling), 의지하기(willing) 등의 심리적 기능을 가진다. 슈타이너의 연구 중,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영혼의 3가지 기능 또는 심리적 기능인 사고, 감정, 의지들과 신체 유기체 기관들과의 정확한 관계와 그 연결성이다. 즉, 사고하기를 담당하는 신체 유기체의 기관은 신경감각체계로 두뇌 및 감각관들을 말하고, 느끼기 기관은 리듬체계로 가슴 속에 들어 있는 심장과 폐기관들이고, 의지하기 기관은 대사-소화체계로 횡경막 밑 하체에 속하는 기관들을 말한다. 그런데 사고 및 개념화 과정을 수반하는 높은 차원의 의식과정은 인간 유기체 속에서 독성활동을 일으키고 이 독성들은 무의식적 의식과정을 통해 독성상황들이 해소된다. 말하자면 인간이 의식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인간자신을 독성화시키는 사실 때문에 필수적으로 ‘에테르체’라고 불리는 생명력을 형성하는 에너지가 그 해독화 및 해소 과정을 통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게 된다. 이 과정을 위해 감정의 기능이 있는 중간체계인 리듬체계가 강화되어 정신과 신체 사이의 매개작용을 통해 생명

력 있는 기능이 도모되어야 한다(Monges, 1979, 임용자, 2001, 재인용).

그는 인간의 삼원적 본질구조, 즉 육체, 영혼, 정신 중에서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그것은 참다운 인간이 아니며 이 세 구조가 하나로 통합될 때 인간존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2) 발달단계와 특성

슈타이너는 인간을 육체, 영혼, 정신을 가진 통합적 존재로 볼 뿐만 아니라 네 가지 구성체인 육체, 생명체(에테르체), 감정체(아스트랄체), 자아체로 이루어진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네 가지 구성체는 7년을 주기로 탄생하며 각 주기별로 독특한 특징을 나타낸다.

제 1차 7년기는 태어나서 7세까지로 물리적 신체가 탄생하며 신체적 감각들을 통해 받아들인 인상애 의존하여 모방함으로써 ‘의지’를 배우게 된다.

제 2차 7년기는 7세에서 14세 사이로 아동이 이를 갈기 시작하면서 보호막에 싸여 있던 생명체(에테르체)가 탄생하며 느낌과 상상에 의존하는 체험과 예술적인 작업을 통해 ‘감정’을 개발한다. 따라서 저학년 단계에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학습에 몰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제 3차 7년기는 14세에서 21세 사이로 추상적인 사고력의 발달을 특징으로 하며 동물에게만 볼 수 있는 욕구, 고통, 기쁨, 열정 같은 감정이 완전히 성숙되어 밖으로 탄생하게 되면 사고력이나 판단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의 세 단계를 거치면 의지, 감정, 사고의 세 영역이 비로써 조화를 이루어 마지막으로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자아가 탄생하며 비로서 성인이 된다. 자아는 영혼(soul)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물질체, 생명체, 감정체를 조절하고 영향을 준다. 자아체는 인간에게 독립성과 자의의식을 일깨워주도록 도와주는 본질 구성 요소이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4개의 구성체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지만 물리적 신체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인지하기 힘들며,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느끼기 위해서는 인간 본질에 내재해 있는 초감각적인 본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최은경, 1999; 엄옥진, 2000; 이우용, 2000; 김윤경, 2001; 임용자, 2001).

## 2. 발도르프 학교의 노작교육

발도르프 학교는 예술교과뿐만 아니라 수공예(Handarbeit) 교과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적·경제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교육적인 이유로부터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손으로 하는 학과들에 중요성을 부여한다(전일균, 1996).

루돌프 슈타이너는 신체(body), 정신(spirit), 영혼(soul)이 전 인간적인 존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 속에서 물질적 세계에서 정신적 세계로 이끄는 교육적 활동으로서의 노작 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발도르프 교육에서의 노작교육은 전인성(全人性)에 바탕을 두고 신체와 정신을 통합하는 활동이다. 노작교육은 신체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정신적 활동의 하나이다. 이것이 손, 머리, 가슴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추구할 때 노작교육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

발도르프 교육의 노작활동은 크게 수공예 시간과 목공예 시간, 그리고 원예 및 농사짓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수공예시간을 보면, 1학년 때부터 뜨개질을 한다. 학년이 높아가면서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이용하여 인형이나 간단한 작품을 만든다. 7학년부터는 재봉질을 배우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옷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한다. 수공예 수업은 어린이들이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직접 해 볼 수 있다는 실용적인 목표도 있지만, 더 나아가 그것이 손을 많이 움직여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영혼을 맑게 하는 참다운 예술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조경선, 2000).

발도르프 교육에서 인형만들기 수업은 예술적 감성 교육을 위한 목적을 지닌다. 발도르프 인형은 독일의 형견인형 만들기 전통이 발전되어 나타난 것으로 슈타이너에 의해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발도르프 형견 인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인형의 눈, 코, 입을 점으로 표시하여 인형의 표정을 없애거나 단순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된 인형의 표정은 아이들이 알아서 그때그때 상상하도록 한다. 발도르프 인형의 또 다른 특징은 순수 천연섬유와 소재로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연소재는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질감과 양감이 있어 생명체에게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정감을 지니게 한다. 또한, 플라스틱과 달리 형견에는 손때와 채취가 묻어나 아동의 순수한 감각 발달을 위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단순히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직접 만드는 과정을 중시한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발도르프 인형은 아이들에게 돌도 없는 특별한 인형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춘천시 00초등학교 6학년을 00반(남자 18명, 여자 22명)을 대상으로 한다. 00 초등학교는 강원도 춘천시 미군부대 근처인 외곽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아동의 대부분이 그 주변에 살고 있다. 춘천시 중심의 초등학교들과 비교하여 볼 때, 부모의 경제력이 낮고 사설 학원에 다니는 학생 수도 적다. 또한,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며 학습능력이 낮은 편이다.

### 2. 연구시기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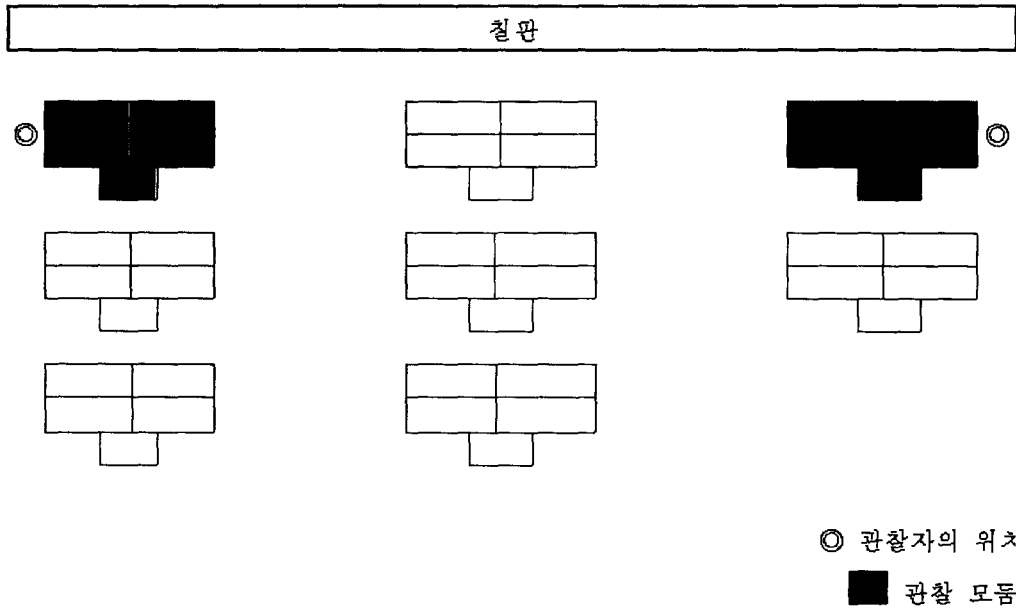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02년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8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첫 주와 둘째 주는 토요일에 3시간 동안 전일제로, 마지막 셋째 주 수업은 금요일 5, 6교시에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수업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수업일정

주	일자	수업내용
1주	8.31.(토) 1-3교시	· 만남, 바느질로 된 물건 찾기, 천 가지고 자유롭게 놀기 자유로운 수놓기, 인형극 주제 설정하기, 인형 마름질하기
2주	9.7.(토) 1-3교시	· 마름질한 천을 박음질하기, 천 뒤집기, 솜 넣기, 창구멍 막기
3주	9.13.(금) 5-6교시	· 인형 눈·입 수놓기, 머리카락 붙이기, 옷 만들기, 인형극발표, 인형에게 편지쓰기

### 3. 연구환경 설계

수업 진행 교사는 연구원 중 한 명이 하였으며 나머지 연구원들은 관찰 및 수업 진행의 보조적 역할을



〈그림 1〉 교실 배치도와 관찰자의 위치

수행하였다. 한 모둠은 5명씩 구성하되 기존의 모둠을 중심으로 짜도록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관찰 대상은 8모둠 중 두 모둠을 임의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찰한다. 교실 배치도와 관찰자의 위치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 4. 결과 분석 및 방법

#####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참여 관찰 방법에 의한 질적 사례 연구로서 담임교사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수업 진행 교사 1인, 보조교사 2인, 이동카메라 보조 1인 등이 교실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연구 결과 해석 과정에서 교수 1인이 참여하였다. 또한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들이 아동들의 모든 활동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토의하는 삼각 측정법<sup>3)</sup>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관찰기록 노트

- \* 아동의 활동과정을 담은 120분용 비디오테이프 3개
- \* 수업 과정의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 \* 아동들의 활동자료
- \* 수업 진행 과정 중 아동들이 만든 각종 작품

##### 2)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erner(1948)와 Vygotsky(1978)가 제안한 미시발생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김은희, 1996). 이는 수업 활동과정 중 아동이 표상한 언어, 그림, 사건을 중심으로 사고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3주 동안의 수업 전 과정을 관찰하여 기록하였고, 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 및 전사하였다. 또한 전사한 내용을 관찰기록 노트와 대조하고 아동들이 표상한 작품, 대화내용, 행동 방식 등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합의된 해석을 바탕으로 아동의 상호작용 및 학습 태도의 변

3) “삼각측정(triangulation)”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관찰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을 입증하거나 또는 그것의 다른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된다. 본 연구에서는 Denzin(1984)이 제시한 삼각측정 방법 중, 각기 다른 연구자로 하여금 같은 장면이나 현상을 관찰하게 하는 “연구자 삼각측정”과 직접적인 관찰 후에 문서 등 과거의 기록들을 점검하거나 관찰, 면담 등의 고찰을 통해 해석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론적 삼각측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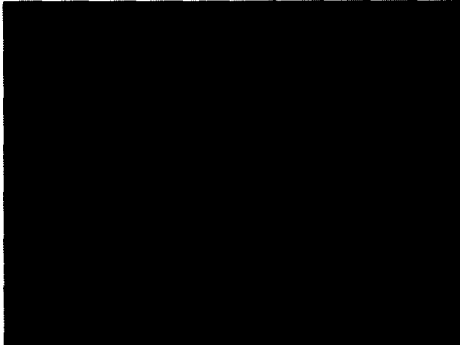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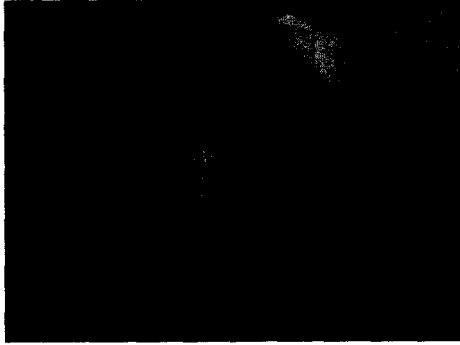


화과정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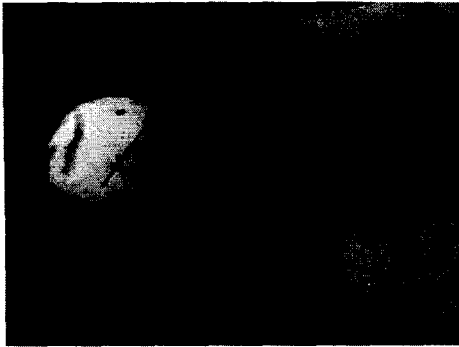
5. 연구 도구 개발

1) 형겅 인형 개발

형겅인형은 발도르프 교육에서 보여지는 특징을 살리되 아동의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변형하여 제작하였다. 형겅인형 만드는 순서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인형 만드는 순서

	
<p>두꺼운 종이에 사람의 모양을 그린다. 이 때 모가 나는 부분은 부드럽게 처리해야 한다.</p>	<p>사람 모양을 가위로 오린 후, 천의 안감 위에 올려놓고 완성선을 그린다.</p>
	
<p>시접을 0.5cm 정도 남기고 가위로 자른다.</p>	<p>4cm 정도의 창구멍을 남기고 완성선을 박음질로 바느질한 후, 천을 뒤집는다.</p>
	
<p>뒤집은 천의 창구멍을 통해 솜을 집어넣는다.</p>	<p>창구멍을 공그르기 방법으로 바느질하여 막는다.</p>



별 모양으로 두 눈을 수놓는다.



두꺼운 도화지에 털실을 수회 감는다.



한쪽 면은 1/4 치우친 곳에, 다른 면은 1/2 되는 지점에 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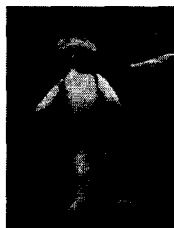
도화지의 양끝 지점에 가위를 넣고 털실을 자른다.



1/4 지점에 묶은 털실을 인형 몸체 앞머리 부분에 글루건이나 바느질로 고정시킨다.



1/2 지점에 묶은 털실은 옆머리에 고정하여 앞머리와 어울리게 정리해준다.



완성된 모습

2) 수업 지도안 개발

(1) 1주(2002. 8. 31. 土)

본시주제	바느질과 친해지기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주변의 바느질 용품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li> <li>· 바느질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다.</li> </ul>			
학습진행형태	전체 학습 및 모둠학습	기대되는 학습 능력 요소	관찰력, 표현력, 창의력	
학습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활동	시간	지도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남 가지기</li> <li>-수업소개 및 자기소개</li> <li>◇인형극 감상하기</li> <li>◇학습문제 확인</li> <li>♣ 우리 주변의 바느질 용품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관찰해 봅시다.</li> <li>♣ 바느질에 대한 감각을 익혀 봅시다.</li> </ul>	15 4 1	☞형걸인형, 무대장치
	전체학습  모둠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1] 우리 주변에서 바느질 용품을 찾아 보기(빙고게임)</li> <li>-우리 주변에서 바느질로 만든 물건들을 찾아봅시다.</li> <li>-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관찰해 봅시다.</li> <li>[활동2] 천 가지고 자유롭게 놀기(바느질의 필요성 알기)</li> <li>-바느질이 없었다면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모둠별로 토의해 봅시다.</li> <li>-토의한 결과를 천을 가지고 표현한 후 발표해 봅시다.</li> </ul>	7  23	☞커다란 천, 끈, 가위
	개별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3] 자유로운 수놓기</li> <li>-흰 방석에 자유롭게 색실을 이용하여 수를 놓아 봅시다.</li> <li>※지도 시 유의사항</li> <li>아동들에게 이 활동을 제시해주는 것은 바느질과 친해지게 하려는 목적이 크므로 이전 활동에서 익혔던 홈질, 박음질, 감침질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해 준다.단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방석에 자신만의 무늬를 넣으라고 지도한다.</li> <li>-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서로 감상하여 봅시다.</li> </ul>	25	☞흰 방석 (13×13cm), 색실, 바늘, 쪽가위 ☞음악CD 아동이 수놓을 때 음악을 틀어주어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도록 한다.
	모둠학습  개별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 시 유의사항</li> <li>인형 본을 그릴 때 본의 형태가 곡선이 되도록 지도한다. 바느질 후 천에 주름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li> <li>-인형 본 그려보기</li> <li>-천에 옮겨 그리고 자르기</li> </ul>	20  10	한 사람씩 등장인물을 맡도록 지도한다. 등장인물이 모듬원 수 보다 적을 경우에는 주제에 관련된 다른 것들을 제작할 수 있다.
정리 및 차시 예고	전체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뒹정리하기</li> <li>-가위, 실, 바늘 등 활동에 썼던 물품들을 제자리에 놓고 주변을 정리합시다.</li> <li>◇차시예고</li> <li>-옷 만들기</li> </ul>	5	☞준비물 모듬별로 헌옷 한벌 이상 준비해오기



(2) 2주( 2002. 9. 7. 土)

본시주제	인형 만들기			
학습목표	♣ 바느질을 이용하여 인형을 만들 수 있다.			
학습진행형태	개별학습	기대되는 학습 능력 요소	주의 집중력	
학습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활동	시간	지도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학습 상기</li> <li>☞ 바느질의 필요성 이해하기</li> <li>◇ 학습준비물 확인</li> <li>◇ 학습문제 확인</li> <li>♣ 간단한 바느질을 이용하여 인형을 만들어 봅시다.</li> </ul>	3 2 1	
전개	전체학습 개별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바느질 확인하기</li> <li>-박음질하는 방법을 확인한다(교사시범).</li> <li>[활동1] 마름질한 천을 박음질로 바느질하기</li> <li>-두 장의 천을 시침핀으로 고정시킨다.</li> <li>-옆구리 부분에 창구멍을 4cm정도 남기고 나머지 부분만 바느질한다.</li> <li>※활동 시 유의사항</li> <li>◦모가 나지 않게 바느질해야 할 부분을 알려준다.</li> <li>◦사용이 끝난 시침핀과 바늘은 항상 바늘꽂이에 꽂아놓고 사용한다.</li> </ul>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형 바늘, 부직포, 털실</li> <li>☞준비물</li> <li>마름질한 천, 실, 바늘, 쪽가위, 가위, 시침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2] 천 뒤집기</li> <li>-시접을 0.5cm 정도만 남겨 놓고 잘라 정리한다.</li> <li>-창구멍을 이용하여 천을 뒤집는다</li> <li>-잘 뒤집히지 않으면 바늘이나 연필을 사용한다.</li> <li>[활동3] 솜 넣기</li> <li>&lt;솜 넣는 순서&gt;</li> <li>-머리에 솜 넣기: 머리가 둥그런 모양이 나오도록 단단해 질 때까지 넣는다.</li> <li>-팔·다리에 솜 넣기: 팔과 다리 부분은 끝 쪽 부분에만 솜을 넣는다.</li> <li>-몸에 솜 넣기: 입체감이 나도록 솜을 충분히 넣는다.</li> <li>[활동4] 창구멍 막기</li> <li>-공그르기 방법을 익힌다(교사시범)</li> <li>-공그르기로 창구멍을 막는다.</li> </ul>	10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접이 넓으면 잘 뒤집히지 않는다.</li> <li>☞ 솜</li> <li>☞모형바늘, 모형 천, 털실</li> </ul>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뒤틀정리하기</li> <li>-가위, 실, 바늘 등 활동에 썼던 물품들을 제자리에 놓고 주변을 정리한다.</li> <li>◇차시예고</li> <li>-인형 마무리짓기</li> <li>-인형극 하기</li> </ul>	5	☞과제: 모듬별로 인형극 대본 구상해 오기

(3) 3주( 2002. 9. 13. 金)

본시주제	인형 만들기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의 특성에 맞게 인형을 꾸밀 수 있다.</li> <li>◆ 등장인물의 특성을 살려 인형극을 할 수 있다.</li> </ul>			
학습진행형태	개별학습 및 모둠학습	기대되는 학습 능력 요소	주의 집중력, 표현력	
학습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활동	시간	지도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집중하기</li> <li>◇ 학습준비물 확인</li> <li>◇ 학습문제 확인</li> <li>◆ 인물의 특성에 맞게 인형을 꾸며봅시다.</li> <li>◆ 자신이 직접 만든 인형을 가지고 인형극을 하여 봅시다.</li> </ul>	2 2 1	
전개	전체학습	[활동1] 인형 눈, 입 수놓기 -수놓는 방법을 익힌다(교사시범). -수실을 이용하여 x자를 반복해가며 눈을 수를 놓는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형바늘, 부직포, 털실</li> <li>☞ 수실, 바늘, 쪽가위</li> <li>☞ 털실, 두꺼운 도화지, 쪽가위, 글루건</li> <li>☞실, 바늘, 여러 종류의 천, 가위, 쪽가위, 노끈</li> <li>※옷은 창의적으로 만들도록 지도한다.</li> <li>☞인형극 무대장치</li> <li>※바른 취취자세에 대해 언급한다.</li> </ul>
	개별학습	[활동2] 인형 머리카락 붙이기 <인형 머리카락 붙이는 순서> -원하는 머리길이의 두꺼운 도화지를 준비한다. -두꺼운 도화지에 털실을 감는다. -감은 털실의 양끝을 자르고 가운데 부분을 털실 한 가닥으로 묶는다. -이런 방법으로 앞머리와 뒷머리 두 묶음을 준비해서 글루건으로 붙인다. -쪽가위로 머리를 정리한다. ※활동 시 유의사항 ◦글루건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교사가 도와준다. [활동3] 옷 만들기 -천과 천을 묶거나, 끈을 이용하여 옷을 입힌다. -가위, 실, 바늘 등 활동에 썼던 물품들을 제자리에 놓고 주변을 정리한다. [활동4] 인형극 연습하기 -미리 준비한 대본을 가지고 인형극 연습을 한다. [활동5] 인형극 발표하기 -인형극을 관람하면서 친구들이 만든 인형을 자세하게 관찰한다.	15 15 10 20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느낀 점 이야기하기</li> <li>-수업시간동안 행했던 자유로운 수놓기 및 인형들을 전시하며 수업 느낌을 발표해본다.</li> </ul>	5	☞과제: 인형에게 편지 써보기

IV. 연구 결과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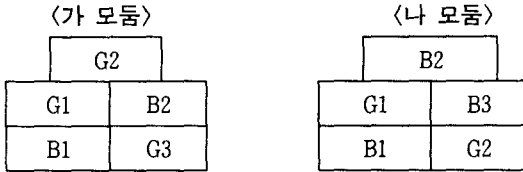
1. 관찰 모듬원의 일반적인 특성

'가 모듬'원들은 수업의 초기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으며, 산만하고 과잉행동(B1, B2)을 보이거나 소극적이고 내성적(G1, G2, G3)인 성격을

가졌다. B2의 경우 자기주장이 강하여 조원들과 잦은 다툼을 일으킨다. G3의 경우 학급회장을 맡고 있으며 주의 집중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다.

'나 모듬'은 대체적으로 수업 활동에 잘 참여하며,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보이는 남자 아동(B2, B3), 소극적이며 내성적인 아동(G1, B1), 적극적이며 활발한 성격의 아동(G2)이 포함되어 있다. B1은 B2와

B3에 비해 거의 자리를 뜨지 않고 모듬의 분위기를 좋게 하여주며 수업에 참여하였고 교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요청하였다. G2는 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우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였다. 관찰 모듬의 자리 배치도는 <그림2>와 같다.



(B는 남자아동, G는 여자아동을 나타낸 것임)  
<그림 2> 관찰 모듬 자리 배치도

## 2. 관찰연구 사례

### 1) 주변에서 바느질 용품 찾기

#### ① 가 모듬

상호작용: G1, G2가 활동에는 관심을 보였으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주로 쳐다보기만 할뿐 학생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B2는 빙고게임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자기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워 조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태도: B1은 수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산만한 태도를 보였고 G1, G2 모두 수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쳐다보기만 하였다. G3는 가장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제시를 다양하게 하였다.

#### ② 나 모듬

상호작용: G2가 주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독단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B1, G1 등이 잘 따르고 도움을 주었다. 특히 B1은 가끔 농담을 하여 조의 분위기를 친밀하고 즐겁게 만들어주었다. B2는 의견 제시는 하였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았으며 판 짓을 많이 하며 자주 자리를 뜨고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었다. B3 역시 자주 자리를 뜨며 의사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다.

태도: B2는 매우 산만한 수업 태도를 보이며 B3는 의견을 거의 제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G2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 2) 천 가지고 자유롭게 놀기

#### ① 가 모듬

상호작용: 연구자는 B2의 독단적인 태도로 조의 활동과 분위기가 위축되자 이 활동에서는 B2에게 모델 역할을 맡도록 권유하고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 토의에 직접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방법을 취하여 B2의 활동을 제한하였다. G3가 중심이 되어 의견을 수렴하고 G1, G2는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였다. G3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등의 질문을 던짐으로서 G1, G2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었다.

태도: 앞의 활동에 비해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훨씬 높아졌으며 활발해졌다. 소극적이었던 G2는 끈, 가위 등을 사용하여 활동에 참여하고 뒷정리 또한 열심히 하였으나, B2는 제한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독단적이며 자기의견만을 내세우는 경향을 보였다.

#### ② 나 모듬

상호작용: G1, G2가 활동을 주도해 나가며 G2가 직접 가위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천을 자르지만 다른 아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B1은 남은 천으로 장난을 치며 B2는 다른 조를 참견하고 B3는 자리에 앉아서 조원들의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태도: B2는 자리를 자주 뜨고 다른 조를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자기 조의 모델에게 남은 천으로 직접 모자를 만들어주려고 하였으며 B3는 G2가 오리고 남은 천을 자신의 몸에 가져다 대는 등 수업 활동에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림3> 천 가지고 자유롭게 놀기



〈그림 4〉 패션쇼 하기

3) 인형극 주제 정하기

① 가 모둠

상호작용 : G1, G2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었으며 G1, G2, G3 간에는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B2는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였으며 다수결에 의해 주제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주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아이들 셋이서 찢다며 불평을 털어놓았고 이때 연구자가 개입하여 그렇지 않음을 인식시키고 다시 활동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동화로 주제망을 좁힌 후, 세부 주제를 정하는 도중에도 B2는 계속 다른 조원들이 주제를 정하는 동안에 시비를 걸었으며 이러한 B2의 태도에 다른 아동들은 B2의 의견을 무시하였다. 연구자가 조원들에게 빨간 모자에 사냥꾼이 나오냐고 물어보자 G3는 안나온다고 대답하였고, B2는 나온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B2는 '빨간 모자'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정하기가 막바지에 이르자 B2를 제외한 모든 아동들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제에 따른 역할 배정에 관심을 가졌다(B1-늑대, G1-어머니, G2-빨간 모자, B2-사냥꾼, G3-할머니)

태도 : B1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친구들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고 조용히 참여하였으며 G1, G2는 처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G3는 비록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일일이 확인한 후 결정함으로써 B2와는 대조적으로 신뢰감을 얻으며 리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G3는 소극적인 아동 두 명과 산만한 아동 두 명을 모둠활동에서 잘 이끌어 감으로써 '가 모둠'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아동으로써 자리 잡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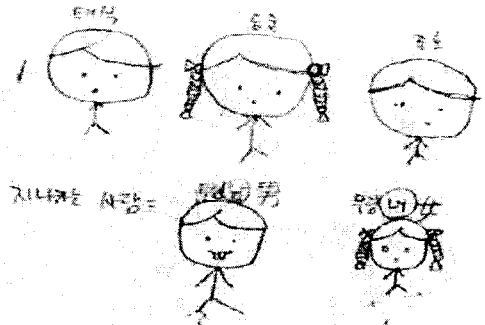
② 나 모둠

상호작용 : 가 모둠에 비해 순조롭게 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되었으며 B1이 주제(햄버거 CF)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자발적으로 역할을 결정하였다(B1-할머니, B2-개, B3-햄버거, G1-삼촌, G2-남자아이).

태도 : 계속 친구들을 지켜보던 B3는 인형극의 역할을 결정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였다.

Non Stop\* (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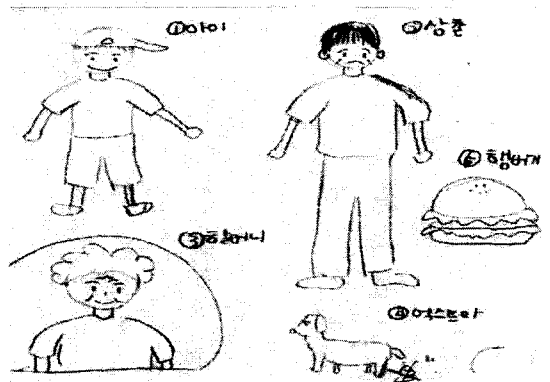
우리 인형극은



〈그림 5〉인형극 주제 정하기

신 동모기 CF

〈방나방가〉



〈그림 6〉 인형극 주제 정하기

4) 인형 만들기-바느질하기

① 가 모듬

상호작용 : 본격적인 인형 만들기 수업이 시작되어 모듬별 활동보다 개별 활동이 많아 상호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친구를 도와주거나 도움을 청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었다. B1이 결석하였고 G1, G3는 ‘마름질 해오기’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수업 준비도 양호하였으나, B2는 과제를 해오지 않았고 G2는 자신의 마름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름질할 친을 새롭게 요구하였다.

태도 : G1와 G3는 인형 만들기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였으나, G2와 B2는 바늘을 실에 꿰는 것부터 매듭을 짓는 일까지 일일이 연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G2와 B2는 매듭짓는 것을 어려워하였고 B2는 바느질을 하는 동안 내내 옆 조에 가서 말다툼을 하거나 친구에게 시비를 거는 등 다소 산만한 행동들을 많이 나타내었다. 또한 바느질을 하는 데 있어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하였으며 종종 서서 한다거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등 차분히 집중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은 듯 보였다.

② 나 모듬

상호작용 : B1, G1, G2는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느질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여 나갔고 B2, B3는 둘이서 계속 떠들며 바느질 활동을 멈추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속도가 느렸다. 특히 B2는 다른 조원에게 시비를 걸어 교사의 제지를 받기도 하였다. B1은 교사에게 매듭짓는 것을 계속 부탁하는 모습을 보였다.

태도 : B2는 다른 친구들이 완성해나가는 모습을 보자 그제서야 바느질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수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꼼꼼하게 바느질을 하면서 열심히 참여하였다.



〈그림 7〉 바느질하는 모습



〈그림 8〉 옷 만드는 모습

5) 인형 마무리 짓기

① 가 모듬

상호작용 : G1, G2, G3는 인형을 완성하는데 집중하였고 B2는 여전히 산만한 태도를 보였으나 활동 도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G3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첫 수업시간에 조원들이 모두 B2의 의견을 무시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G3는 B2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B2가 만드는 인형의 옷을 만들어주며 B2가 완성하도록 옷을 넘겨주었다. G3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은 후 B2는 자신의 인형 옷을 만드는데 열중하였으며 기대 이상으로 옷을 잘 완성시켰다.

태도 : 대부분의 조원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자신이 완성한 결과물에 대해 만족스럽고 흐뭇해 하였다. G2, B2는 약간의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수업에 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B1은 지난주의 결석으로 인하여 바느질 속도나 솜씨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었다.

② 나 모듬

상호작용 : 아이들은 서로가 만든 인형을 재미있어 하면서 서로 칭찬해주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 동안 B1, G1, G2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상호작용이 점차 그 벽이 없어지고 B2, B3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B2가 인형을 만드는데 집중을 함에 따라 다른 모듬에 가서 장난을 치는 일이 줄어들고, 같은 조원들에게도 비난을 받는 일이 적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또한 B3도 자신의 인형을 완성하자 스스로 다른 아이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서로 인형을 가지고 인형놀이를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듬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다.

태도 : 소극적인 B3는 바느질에 어려움을 느껴서 바느질을 주저하기도 하였으며, 중간 중간 바느질하

기를 멈추고 가만히 있거나 B2와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숨을 수정하고 나서 인형을 완성한 후 자신의 인형을 친구들에게 인사시키고 만족스러워하였으며 친구들과 인형을 가지고 노는 등 자신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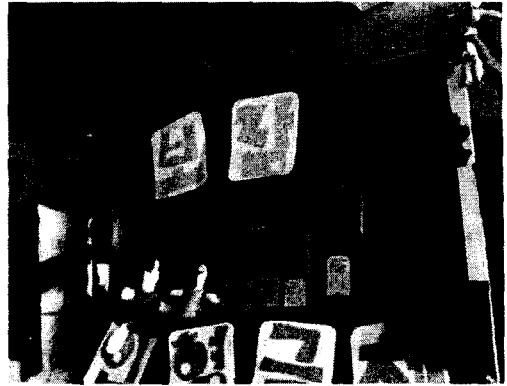
6) 인형극하기

'가 모뎀'의 인형극 주제는 '빨간 모자'로써 아동들이 작성한 대본은 다른 조보다 분량이 많았다. 조원들은 '빨간 모자'의 한 장면을 시나리오로 써온 것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자신들이 간추려 작성해왔는데 다른 모뎀들이 발표한 인형극보다 알차고 실감나게 표현을 잘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체적으로 G2와 B1의 대사가 제일 많았으며 G2는 특히 해설을 함께 병행하여 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1은 늑대 목소리를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G1의 대사는 역할비중이 적어 대사가 적어서 아쉬웠으며 B2 또한 실감나게 표현할 대사가 적어 역할이 잘 표현되지 못하였다.

'나 모뎀'은 '햄버거 CF'를 주제로 하여 각자의 역할을 원활이 수행하였고 조원 모두 적극적으로 인형극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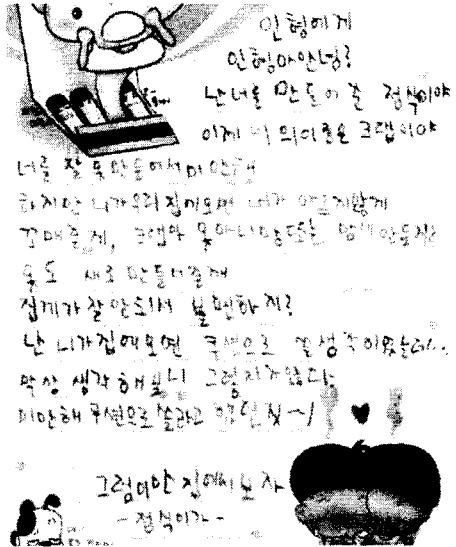
<그림 9> 인형극하기



<그림 10> 인형극 하는 모습

7) 인형에게 편지 쓰기

아동들에게 자신이 만든 인형과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편지를 쓰도록 과제를 부여하였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자신의 인형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으며 친구에게 편지를 쓰듯 자신의 감정과 느낌, 하고 싶은 말들을 실었다. 아동들은 자신의 인형에 대한 애착과 완성했다는 만족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아동들이 쓴 편지 내용이다.



<그림 11> 남자 아동의 편지

To. 인형  
안녕? 인형야.  
이 편지를 쓰는 나는 너를 만는 손은이라고 해.  
너를 만들려고 참 많은 노력도 했어.  
내 단열 직접 한담 한담 바느질도 하고 옷도 직접  
만들었어.  
만드는 동안 너무 힘들어서 지치잖아 때까 있었고 그랬는  
데 다 만들 끝 나비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내 손으로 인형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하는 생각도 들었어  
너를 만들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 선생님께도 감사  
했어  
또 만드는 동안 바느질도 다시 익히고 실기라는 과학  
이 너무너무 좋아졌어  
예전에도 좋아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좋아졌어  
하루 밤엔 내 꿈에 니가 오면 꿈꿨어.  
그럼 안녕!

- 9월 15일 송은샘 -

<그림 12> 여자 아동의 편지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초등 실과교육 중 손바느질 수업을 '형질인형 만들기' 라는 수업으로 재구성한 후, 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아동의 상호작용 및 수업 태도의 변화과정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첫째,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동간의 대화의 양과 질이 증가하였다. '가 모뎀'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아동과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으로 양극화되어 처음에는 거의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않았으나, 수업에 참여하는 정도가 깊어질수록 대화가 늘어나고 내용 또한 농담이나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점점 바느질 활동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내성적 성격을 지닌 아동들도 적게나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조원들과 대화에 참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다른 아동들과 대화를 하지 않

을 때에는 혼자말로 불평이나 문제점을 자신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둘째, 아동간의 의존성과 상호 신뢰성이 증가하였다. 조원들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두 모뎀 모두 1명씩 리더(가-G3, 나-G2)가 나타났으며 이들은 다른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조원들은 이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으며 또한 리더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존성은 상호 신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행동 등을 통해 표현되었다.

셋째, 아동간의 친밀감과 협동심이 증가하였다. 조원들 간에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각자 활동을 해결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아동들은 친밀감이 형성되기 시작되자 자신의 모뎀원들의 준비물을 챙겨 주거나 도움을 주는 등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특히 '가 모뎀'의 경우 B2와 G3는 첫 수업에서는 서로 의견충돌을 보이며 언성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자 B2가 G3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G3 또한 그의 도움을 선뜻 받아들였다. B2는 독단적 성격을 띤 아동으로서 조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였으나 점점 G3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B2의 경우 자신의 모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독단적 태도를 보였던 초기 수업자세와는 달리 바느질 수업에서는 자신의 모뎀원들이 쓸 준비물들을 자발적으로 챙겨온 것이 관찰되었다. 이와 함께 G3 또한 B2에게 조언을 하며 바느질 활동을 도와줌으로써 서로 협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모뎀'에서도 G1, G2, B1 간에 초기부터 형성된 친밀감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의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B2, B3가 인형극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나자 친밀감과 협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넷째, 교사와 아동간의 친밀감이 증가하였다. 첫 수업에서는 학생, 수업진행 교사, 관찰자 간에 어색한 만남으로 인해 대화가 적었으나 2주째 수업부터는 관찰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일상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이끄는 등 본 연구자들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 볼 수 있었다. 아동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연구자들이 수업을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동들의 연구자에 대한 관심은 본 수업이 종료된 후에도 e-mail로 안부를 묻고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동 등에서 드러났다.

2)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의 태도변화는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첫째,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증가하였다. 처음 바느질을 시작하면서 아동들은 과연 이것이 정말 인형이 될까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인형을 완성해가면서 자신도 인형을 만들 수 있다는 뿌듯함과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자신감은 수줍음을 많이 타는 내성적인 아동에게 큰 변화를 가져와서(가-G1,G2,G3, 나-G1,B1),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잘 표현하지 않던 아동이 자신의 인형을 다른 친구에게 자랑을 하고 또, 서로의 인형을 인사 시켜가면서 점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게 만든 것이다.

둘째, 흥미와 관심의 증가로 인해 적극성 및 집중력이 높아졌다. 아동들이 느끼는 친의 부드러움과 숨의 폭신평신했던 촉감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 촉감은 자신이 생명을 불어넣어 만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형에서 느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아동들에게 형질 인형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극대화 시켰다. 이러한 원동력은 아동들을 수업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였으며 집중하게 하였는데, 특히 과잉행동을 보이고 산만하며 집중력이 약했던 아동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가-B1,B2, 나-B2,B3).

셋째, 자신이 직접 만든 인형에 대한 애착 형성으로 인해 실과 수업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아동들에게 인형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바느질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아동들은 점차 완성되어 가는 인형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인형에 대한 애착을 가졌다. 인형은 아동에게 자신의 분신이 되기도 하였으며, 친구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형질 인형은 만들기는 아동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으며, 해냈다는 기쁨을 안겨 주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실과 수업이 흥미롭고 유익한 수업이라는 긍정적인 수업 태도를 갖게 되었다.

##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업을 통해 아동들은 상호작용과 태도 변화 외에도 다른 내적인 변화를 보였을 것이므로 아동의 자아 효능감이나 성 고정관념 등과 같은 다른 내적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학교의 사정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나,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상 질적 관찰 연구만을 수행하였으나 양적 연구방법에 의한 교육 효과를 세밀하게 측정 할 수도 있다.

끝으로, 기존의 초등 실과 바느질 단원은 아이들의 흥미나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보다는 단지 실생활에서 필요한 용품 만들기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흥미로우면서도 전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학습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윤경(2001).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 김은희(1996) 다상징적 접근에 의한 유아 사고과정의 변화.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안관수(1998). '송정산의 삼동윤리와 대안교육', 원불교 사상, 22.
- 이우용(2000). 슈타이너 교육사상에서 미술교육의 의미와 Formen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 엄옥진(2000). 자유 발도르프 유치원과 한국 유치원의 교육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 임용자(2001). 발달 및 치료도구로서의 교육예술 유리 드미(Eurythmy). 발도르프 교육자료 모음집6. pp.125-142, 한국루돌프 슈타이너 교육예술 협회.
- 전일균(1996). 루돌프 슈타이너의 노작교육론, 교육학 연구. pp.43-62
- 정운경(1998).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론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정혜영(1997). 발도르프 학교의 초등교육 실제 탐색, 교육학연구. pp.5-22
- 조경선(2000).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 한국 초등교육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석사학위논문, 2000
- 최은경(1999). Waldorf학교의 교육활동 및 운영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실과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손바느질 수업을 발도르프 교육 철학에 기초를 둔 ‘형깁 인형 만들기’라는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아동간의 상호작용 및 수업 태도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상에 의해 확립된 발도르프 교육에서 바느질 수업은 ‘가정생활의 필요성’이나 ‘실용적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아동의 발달 차원에서 인간 본질의 구성체 구성에 필요한 치료적·예술적 필요성 때문에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춘천시 ○○초등학교 6학년 40명(남자 18명, 여자 22명)이며, 5명씩으로 구성된 8개의 모둠 가운데 2개의 집중 관찰 모둠을 선정하여 이들 10명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였다. 연구 시기 및 절차는 총 3주 동안 8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관찰기록 노트, 비디오테이프 3개, 사진자료, 아동들의 활동자료 및 각종 작품들 등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방법은 연구자들이 수업 현장에서 직접 기록과 관찰을 수행하는 참여관찰방법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이며, 비디오카메라로 모든 수업 장면을 녹화하여 관찰기록과 비교하고 연구자들과의 합의를 거치는 삼각측정방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은 아동이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형깁 인형과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수업의 내용은 만남 및 수업 안내, 우리 주변에서 바느질 용품 찾아보기, 천 가지고 자유롭게 놀기, 자유로운 수놓기, 인형극 주제 정하기, 인형 만들기, 인형극 하기, 인형에게 편지 쓰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수업이 진행될수록 아동간의 대화의 양과 질이 증가하였다. 둘째, 아동간의 의존성과 신뢰성이 증가하였다. 리더 역할을 하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나타났으며 조원들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언을 해주었다. 셋째, 아동간의 친밀감과 협동심이 증가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넷째, 교사와 아동간의 친밀감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수업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아동들은 점차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 둘째, 아동들은 형깁 인형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증가하여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높은 수업 태도를 보였다. 셋째, 아동들은 자신이 만든 인형에 애착을 가지게 됨으로서 긍정적인 수업태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내성적인 성향, 독단적인 성향, 과잉행동 성향, 산만하거나 주의력 결핍 아동들이 보다 큰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형깁 인형 만들기’ 바느질 수업의 전개과정이 아동간의 상호작용 및 수업에 대한 태도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